한국 야구 대표팀, 3경기만에 첫 승 수확…체코에 7-3 승리

WBC 1라운드 B조 호주·일본에 패한 뒤 첫 승 신고

세 팀 승패 동률되면 실점 아웃 개수로 나눠 순위 산정

12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2023 B조 체코와 대한민국의 경기, 7:3으로 승리한 대표팀 선수들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제5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2연패 후 첫 승을 신고했다.

한국대표팀은 12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WBC 1라운드 B조 체코와의 경기에서 7-3으로 승리했다.

호주와 일본에 연이어 패한 한국은 이날 선발 박세웅과 초반부터 터진 타선의 활약을 앞세워 대회 첫 승을 올렸다.

박세웅은 직구와 슬라이더, 커브를 앞세워 4⅔이닝 1피안타 8탈삼진 무실점 호투로 승리를 이끌었다.

김하성은 솔로 홈런 두 방을 터뜨려 승리에 기여했고, 강백호는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1승 2패를 기록한 한국은 13일 저녁 7시 중국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체코가 호주를 이겨주기를 바라야한다.

한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호주, 체코와 세 팀이 2승 2패로 동률을 기록한 후 가장 우위에 올라 조 2위로 8강에 진출하는 것이다. 세 팀간의 팀 실점, 팀 자책점, 팀 타율 순으로 순위를 산정한다.

한국은 1회말부터 빅이닝을 만들었다.

박건우는 1회 선두타자로 나와 잘 맞은 타구를 만들어냈다. 체코 중견수 마레크 흘루프가 슬라이딩 캐치로 박건우의 타구를 잡는 듯 보였지만, 공은 글러브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후 체코 우익수 마테우 멘치크가 악송구를 저질러 박건우는 3루에 안착했다.

한국은 1회 1사 3루에서 이정후의 적시타로 선제점을 올렸다. 이후 박병호와 강백호의 연속 안타로 1점을 추가한 후 양의지와 김현수의 볼넷으로 1점을 더했다. 곧바로 토미 현수 에드먼의 2타점 적시타에 힘입어 5-0으로 달아났다.

한국의 2회 김하성의 솔로 홈런으로 승기를 잡았다.

한국 선발 박세웅은 5회 2사까지 던지고 마운드을 내려갔고, 두 번째 투수 곽빈은 시속 150㎞대의 강속구를 앞세워 6회까지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

하지만 곽빈이 7회 2연속 안타를 맞고 마운드를 내려갔고, 세 번째 투수 정철원이 멘시크에게 2루타를 맞고 2점을 허용했다.

한국은 7회 공격에서 김하성의 솔로 홈런으로 7-2로 달아났다. 김하성은 2회 타석에서는 좌측으로 홈런을 만들어냈고, 7회 타석에서는 우중간 아치를 그려내며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한국은 8회 투수진이 흔들리며 1점을 더 내줬지만, 9회를 무실점으로 막고 경기를 끝냈다.

한국은 실점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체코에 3점을 허용해 아쉬움을 남겼다.

뉴시스

ML 개막전 때문에… '투수' 오타니는 8강전이 마지막

LAA 감독 "오타니, WBC 8강 등판…이후 등판 안 해"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023 B조 일본과 중국의 경기, 일본 선발투수 오타니 쇼헤이가 마운드에 올라 일본 야구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야구천재'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가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전에 등판한다. 메이저리그 개막전 등판을 위해 WBC 4강 이후 경기에는 투수로 나서지 않는다.

12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에 따르면 필 네빈 LA 에인절스 감독은 "오타니는 WBC 8강전에서 투구할 예정"이라며 "준결승이나 결승전에 등판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8강을 마친 뒤에는 타자로만 WBC에서 뛸 예정이다.

일본 야구대표팀으로 2023 WBC에 참가하고 있는 오타니의 등판 스케줄을 네빈 감독이 언급한 건 '개막일 등판' 때문이다.

네빈 감독은 일찌감치 오타니를 오는 31일 열리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개막전 선발투수로 낙점했다.

오타니는 일본 대표팀으로 WBC에 참가하고 있지만 개막일 등판에 맞춰 몸을 만들어야 한다.

에인절스는 오타니를 25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시범경기에 선반 마운드에 세워 마지막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후 31일 오클랜드와 개막일에 나서게 된다.

이를 고려해 오타니는 2023 WBC 8강전을 끝으로 마운드에 오르지 않는다. 8강전은 15일 또는 16일 열린다. 8강전을 통과하면 20일 또는 21일에 준결승을 치른다. 결승전은 22일이다.

네빈 감독은 "오타니는 개막일 등판을 준비하기 위해 25일 샌디에이고전에 나가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한편, 메이저리그 최고 스타로 꼽히는 오타니는 이번 WBC에서도 투타에 걸쳐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중국과 WBC 1라운드 B조 1차전에 선발 투수 겸 타자로 나와 투수로 4이닝 1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 위력투를 선보이며 팀의 대회 첫 승을 이끌었다.

타자로도 3경기에서 10타수 5안타(타율 0.500) 5볼넷 4타점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오타니의 '원맨쇼'가 펼쳐진 중국전에 이어 한국, 체코를 연거푸 잡아내며 B조 선두를 지키고 있다. 8강 진출이 매우 유력하다.

또 주저앉은 김민재…월드컵 때 종아리 부상 재발 우려

아탈란타전 후반 25분 태클 후 종아리 통증

지난 1월 후 또 통증…심각한 부상 아닌 듯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끌 국가대표팀에서 수비 핵 역할을 할 김민재(나폴리)가 경기 도중 종아리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됐다. 2022 카타르월드컵 때 부상을 입었던 종아리를 다시 다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민재는 12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나폴리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경기장에서 열린 아탈란타와의 2022~2023시즌 세리에A 26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팀의 2-0 승리를 도왔다.

이날 승리로 나폴리는 리그 2위 인터밀란과 승점 차를 18점으로 벌려 33년 만의 리그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견고한 수비로 상대 공격을 막아내던 김민재는 1-0으로 앞선 후반 25분 상대 공격수를 저지하기 위해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해 성공했다.

태클 후 김민재는 통증을 느낀 듯 그라운드에 드러누워 있었다. 4분 뒤 김민재는 주저앉아 오른쪽 종아리를 어루만졌고 주앙 제주스와 교체됐다.

김민재의 종아리 부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민재는 지난 1월9일 리그 17라운드 삼프도리아전 원정 경기에서 전반만 뛰고 교체됐다. 당시도 교체 이유는 종아리 부상이었다.

종아리 부상은 지난해 카타르월드컵 때 발생했다.

김민재는 지난해 11월24일 카타르 알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루과이와의 대회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후반 18분 우루과이 공격수 다르윈 누녜스를 저지하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종아리를 다쳤다. 2차전 가나전까지 치른 김민재는 부상이 악화돼 3차전 포르투갈전에는 결장한 바 있다.

다만 김민재의 부상이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평이 나온다. 김민재가 경기 종료 후 동료들과 웃는 얼굴로 승리를 자축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혔다.

루치아노 스팔레티 나폴리 감독도 김민재가 훈련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해 심한 부상이 아님을 시사했다.

김민재가 부상을 털고 오는 16일 열릴 아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 출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손흥민, 새 사령탑 클린스만 격려에 골로 화답

EPL 통산 99호골 터뜨려…클린스만 신임 감독, 13일 A매치 명단 발표 예정

한국 축구의 간판 손흥민(토트넘)이 새 국가대표 사령탑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의 격려와 응원 메시지에 골로 화답했다.

손흥민은 1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2022~2023 EPL 27라운드에서 선발로 출전해 2-0으로 앞선 후반 17분 세 번째 골을 터뜨렸다. 토트넘은 3-1로 이겼다.

지난달 20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 득점 이후 약 3주 만에 터진 리그 6호골이다.

이 골로 손흥민은 EPL 통산 99호골을 기록했다. 100호골에 단 1골만 남겼다.

2015~2016시즌 독일 분데스리가를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이 100호골 고지에 오르면 아시아 선수 최초다.

동시에 이번 시즌 리그와 컵대회를 통틀어 시즌 10호골로 2016~2017시즌을 시작으로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에 성공했다.

최근 골 침묵,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탈락으로 가라앉았던 기세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의 후임으로 국가대표 지휘봉을 잡은 클린스만 감독의 격려 이후에 나온 득점이라서 눈길을 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9일 경가도 파주NFC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부진에 대해 "카타르월드컵 때 손흥민이 건강 이슈로 어려움이 있었다. (부진은) 모든 선수가 겪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업 앤 다운(부침)이 있을 수 있다"고 격려했다.

클린스만 감독과 손흥민은 토트넘 선후배 사이다.

현역 시절 세계적인 공격수로 활약했던 클린스만 감독은 1994~1995시즌과 1997~1998시즌(임대)에 토트넘에서 뛰었다.

1994~1995시즌에는 리그 41경기에 출전해 20골을 터뜨렸고, 1997~1998시즌에는 삼프도리아(이탈리아) 소속으로 임대 신분이었다. 15경기에 나서서 9골을 기록했다. 대표팀 에이스이자 토트넘 후배인 손흥민이 각별할 수밖에 없다.

클린스만 감독은 "나도 과거에 토트넘에서 뛴 선수로서 토트넘의 경기는 거의 모두 보고 있다. 손흥민의 '빅 팬'이기도 하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새 체제에서도 중심은 손흥민이다.

한국 축구는 오는 24일 콜롬비아, 28일 우루과이를 상대로 카타르월드컵 이후 처음 A매치 평가전을 치른다. 13일 소집 명단을 발표하고, 20일 모일 예정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을 비롯해 카타르월드컵에 나섰던 주축 선수들 위주로 명단을 꾸릴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뉴시스

전남 수구·레슬링·복싱·육상 실업팀 창단

대한체육회 팀창단 공모 선정…11억8650만원 지원

전남지역에 수구·레슬링·복싱·육상 실업팀이 잇따라 창단돼 중·고교 유망주와 연계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팀창단 공모'에 전남은 수구·레슬링·복싱·육상이 선정돼 3년동안 11억865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수구와 레슬링팀은 도체육회로 창단하고 육상과 복싱은 각각 진도군청, 목포시청이 운영한다.

예산은 레슬링 2억7000만원, 수구 3억9000만원, 육상 2억7000만원, 복싱 2억5500만원이 배정됐다.

또 레슬링은 지도자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돼 육성학교가 있는 함평에서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수구는 지도자 1명, 선수 12명 등 총 13명이 전남체고 팀과 함께 연습을 하고 있다.

진도군청 육상팀은 지도자 2명, 선수 7명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목포시청 복싱팀은 지도자 1명, 선수 2명으로 팀을 구성해 올해 창단할 계획이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전남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꿈나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성인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전남 체육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